

“찬불동요로 새싹불자 키운다”

신행연장

부처님께 음악공양 ‘풍경소리’

한 그루 나무가 되기 위해 누군가 한 톨의 씨앗을 심었다. 그들은 뿌린 씨앗이 잘 자라도록 사랑의 물로 가꾸고 가꾸었다. 이제는 그 씨앗이 푸른 나무로 자랐다.

27일 서울 마포 도화동 4층의 풍경소리 녹음실에서는 밝고 빠른 신세대풍의 찬불가요 ‘봉축의 노래’가 웅장하면서도 장엄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컴퓨터 연주장비를 앞에 두고 이종만 실장, 이진구 작곡가, 정유탁 연주자가 머리를 맞대고 부처님 오신날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표현하는 봉축음악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회원들이 손수 재료를 사서 만들었다는 녹음실과 기본적인 음악기 자체를 갖춘 스튜디오이지만 이곳에서 울려 퍼지는 화음은 극락의 소리처럼 아름답게 느껴졌다.

이종만(43)실장은 “부처님께 공양하는 음악이 좋아한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함께 해온 벗우들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큰 원동력이다”며 “교계가 찬불동요 및 가요 창작에 힘을 쏟는다면 불교음악의 길은 밝다”고 힘주어 말했다.

리틀엔젤스 어린이합창단과 삼보사 합창단 지휘자인 이진구(34) 작곡가는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풍경소리에서 음악을 할 생각”이라며

“지속적으로 불교음악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밝혔다.

기획부장 정유탁(28)씨는 “부처님의 주옥같은 감동 법문을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랑감을 가지면서 찬불동요를 만든다”며 “관심있는 청년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94년 찬불 동요·가요 창작과 보급에 원력을 세우고 서울 수송동 쪽방에서 시작한 ‘좋은 벗 풍경소리’는 그동안 찬불동요 테이프 11집과

‘아름다운’ 젊은 불자들

찬불동요 만들기 7년

100곡 창작-100곡 편곡

봉축기념 찬불가요 테이프 3집과 CD한 장, 찬불동요 악보집을 하나 하나 만들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풍경소리가 발표한 찬불동요와 찬불가요는 ‘오늘은 좋은 날’ 등 총 200여곡으로 이중 100여곡은 순수 창작곡이고, 100여곡은 기존 찬불동요 및 가요를 편곡한 것이다.

현대음악에 있어서는 별반 관심이 없는 척박한 교계 환경에서 이중 만실장 이진구, 권양숙, 김희영, 정유탁 씨등 10여명의 작곡 및 작사



▶ 좋은 벗 풍경소리 이종만실장(가운데)과 이진구 정유탁 작곡가가 녹음실에서 신세대풍의 봉축 찬불가요 제작을 함께 하고 있다.

가, 연주자, 가수들은 ‘한 그루 한 그루 모이던 숲이 된다’는 마음으로 7년간 찬불동요 만들기에 매진해왔다.

매년 경제적 어려움으로 녹음실을 옮기면서도 꼬박 꼬박 여름과 겨울 어린이불교학교에 맞춰 2개의 찬불동요음반을 만들어온 풍경소리 회원들은 그동안 겪은 일들을 ‘한’으로 표현하며 어려운 일이 많았던 만큼 앞으로 버티나갈 힘이 생겼다고 말한다.

지난해 찬불동요 10집을 발매한 풍경소리는 사무실 임대료도 못내 체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만두면 안된다. 강원에서 실시일반 정성을

모아 계좌에 입금했으니 받아달라. 운문사 대중스님들이 500만원을 풍경소리 후원기금으로 기탁한 것이다.

이들 계기로 풍경소리는 ‘또 한번의 시작’을 하기로 하고 좋은 찬불동요를 만들기로 새롭게 발심했다.

지난 2월 10일 풍경소리는 제 2도 악을 위해 지현스님(청량사주지)과 덕신스님(연심회 회장)을 총재와 대표로 추대하고 포교원에 단체등록도 신청했다. 이를 계기로 그간 발표된 베스트 동요 모음집과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악 찬불가요 창작 집 불교의식 CD도 제작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연술 및 짜임새를 갖춘 산사음악회 등을 기획하여 한 걸음 나아가는 방침도 세워두었다.

제작 참여 및 후원 문의 02) 717-6985. 김현우 기자 (wkim@buddhapia.com)

주제가 있는 법문

“방에 들어온 독사 내쫓듯 중생의 껍질 벗어야죠”

지난해 사월 초파일 때인가 봅니다. 법당에서 법문하면서 “여러 신도님들, 방안에 독사가 들어왔는데 내쫓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자신있는 사람은 손들어 보세요” 하니, 아무도 손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중생의 껍질을 벗지 못하고 탐진치 3독의 그물에 갇혀 일생을 무의미하게 살다가 생을 끝마치기 쉽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 아닐진대, 우리는 방안에 들어온 독사를 무서워 내쫓듯 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나, 이제 그 해답을 인류의 스승이요 사생의 아버지이신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승경전 중에서도 으뜸으로 치는 <묘법연화경> ‘여래수랑품



묘각스님

정성
묘현사 주지

9가지 구멍에서 흘러나오는 더러운 것을 관찰하고, 마지막은 시체가 된 몸을 상상할 때 애욕은 뜨거운 물에서 얼음 녹듯 사라집니다.

둘째는 다진중생자비관(多瞋衆生慈悲觀)이니, 성질을 불속 잘 내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마음과 몸이 어디로 가는지를 잘 살펴서 마치 흙이 머리가와야들을 사랑하듯, 배고픈 사람이 빵을 보듯, 이렇게 습관을 들이면 머지않아 자비심이 생기니, 이런 자비심 앞에 무슨 신경질이 나겠습니까.

셋째는 다산중생수식관(多散衆生數息觀)이니, 마음이 항상 혼란스럽고 갈팡질팡 하는 사람은 숨을 고르게 쉬라는 뜻입니다. 숨을 고르게 하면 마음이 다잡아지고 몸도 또한 건강해 집니다. 부처님께서 이 수식관을 성취하면, 이 세상에 내리는 빗방울의 숫자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넷째는 우치중생인연관(愚痴衆生因緣觀)입니다. 어리석어 일을 그르치고 후회하는 사람은 눈을 크게 뜨고 악인악과(惡因惡果)가 되지 않고 선인선과가 되도록 떠나갈 때 행복이 옵니다.

다섯째는 다장중생염불관(多障衆生念佛觀)이니, 장애가 많은 사람들은 염불을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사바세계는 범부와 성인이 함께 사는 세상(凡聖同居土)이라, 성인들은 중생들의 잘못을 바라보시면서 마치 어머니가 어린아이의 잘못을 잡아 주듯 갖가지 방편으로 그들을 정도(正道)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천지 사이에 부처님 안계신 곳이 없기에 정성으로 염불하면 범법회, 화엄경, 금강경 등 모든 경전이 광명을 발산하는 것입니다.

범부는 중병든 환자 부처님은 천하명 의

제16'에서 부처님께서 우리 범부들은 중병이 든 환자요 부처님은 의사요 법보경은 처방전이요, 이를 가져서 읽고 의우고 풀어서 밝히고 배껴쓰면 그 마음과 몸이 정화되어 잃어버렸던 광명을 되찾아 자기 부처님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어두운 방에 전기 불을 켜면 방안이 환해져서 무엇이 어디에 놓여있고, 어느 것이 겹고 흰 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빛을 되찾아 부처님의 광명세계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처님 말씀 중에 다섯 가지로 마음을 다잡는 방법(五停心觀)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량중생부정관(多貪衆生不淨觀)이니, 애욕이 많아 여러 실수를 저지르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요사이 너무 많은데, 그것은 윤리·도덕적으로 절제하지 못하고 눈·코·혀·몸·뜻(六根)을 함부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애욕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몸의

생활속의 불교

강물은 강둑을 따라 흐른다

나무 껍질에 글자를 새겨 놓으면 나무가 크는 대로 글자도 커진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면 그 행위는 우리 마음에 흔적을 남긴다. 겉핥기만 하는 행이 아닌 한, 마음의 심층에 남겨진 흔적은 지워지지 않는다. 마치 나무에 흠집을 내 놓은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그런 흔적을 잘 알아채지 못한다. 심한 충격이나 깊은 슬픔의 경우는 흔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쉽게 알아버리지 않지만, 대개의 경우는 그저 흘러가 버린 일로 여긴다. 그러나 느끼지 못한다고 혹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여러라고 해서 흔적이 남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한번 일어난 것은 반드시 임팩트가 되고 임팩트된 것은 어느 때든 다시 나타나게 되어있다.

속담에 ‘고깃덩이를 먹어 본 개’라는 말이 있다. 한 번 맛을 보고 나니 자꾸 먹고 싶어 안달을 하게 된다는 뜻이다. 습기의 무서움을 빗댄 말이다.

이런 얘기도 있다. 어느 불면증 환자가 늘 수면제를 복용해 오다가 어느 날엔 약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잠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다가 깜짝 놀라 깨어나서 ‘하마터면 수면제를 안 먹고 잘 났겠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습관이란 그렇듯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습기를 두려워하는 표현은 다양하다.

“그것은 느낄 수 없을 정도의 가는 사슬이지만 알았을 때는 이미 끊기 어려운 사슬이다.” 습기는 내부의 전체 권력자이다.” 우

리는 매일 습관이라는 노끈을 꼬며 산다.”

내 마음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자유롭게 살려고 한다면, 마음에 각인된 흔적을 지워야 한다. 그것이 뒤늦음이 수행이다. 또 나아가서는 일상 생활 속에서 더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습기를 없애는 수행이 어렵다면 대신 악업을 피하고 선업을 쌓는 일이라고 해야 한다. 경전 말씀엔 나쁜 지식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의식주 돈 권력 명예 따위를 탐하지 않는 것, 정법을 비방하지 않는 것, 바른 길을 가는 벗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있다. 좋은 일 이든 나쁜 일 이든 한 번 길이나면 그 길을 따르기가 쉽다. 강물은 강둑을 만들고 그 강둑을 따라 물이 흐른다. 龍眼

신심있는 기도로 불보살님의 가피를!

월간 『법공양』에 절찬리 연재되었던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참회·철회·회개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곧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푼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모범이 참회인 것입니다.

목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 이기적인 ‘나’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 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부디 정성스런 참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자비광명속으로 들어가는 문턱을 열어 보십시오. 기꺼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행복은 언제나 ‘나’의 몫입니다.

4×6판 / 값 3,500원

- Ⅰ 업장과 참회
- Ⅱ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 Ⅲ 절을 통한 참회
- Ⅳ 참회명불
- Ⅴ 참회행차의 마음가짐
- Ⅵ 이참회와 대승육정참회

올바른 관음기도를 위한 길잡이

행복찬 삶을 이루게하는 관음신앙 관음기도법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중생의 모든 고통을 없애 행복을 안겨주는 관세음보살. 때문에 불자들은 관세음보살을 가장 많이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과 자비의 광휘,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관세음보살의 자비광명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관세음보살의 근본 원력과 구원능력,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이 상세히 실려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가져다 주는 법! 부디 이 책을 참고로 관음의 자비 속에서 소원을 성취하고 행복의 문을 열기 바랍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르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4×6판 / 값 3,500원

불교계 최대의 베스트셀러!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르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소원성취를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생활 속의 기도법』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52가지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불교출판계의 스테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르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일타르스님께서는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성취 영험담들을 모아 이 책을 간행하였습니다.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이야기 끝에 붙인 르스님의 해설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남국선원장 해국스님이 살기쉽고 재미있게 엮은

천수경 천수신앙

신국판 / 값 5,000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독송하는 천수경! 심오한 뜻을 알고 기도하면 성취가 빠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와 관세음보살님께서 깨친 진리를 문자로 표현한 천수경! 그 가르침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위신력이 언제나 함께하고, 능히 심중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